국외출장 복명서

1. 출 장 자 :

김진환 원장, 김한균 인권미래정책연구실장, 안성훈 기획팀장

2. 출장기간 : 2017년 9월 10일 ~ 14일 (4박 5일)

3. 방문국가 : 일본 (도쿄)

4. 출장목적

①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와 MOU 체결

② UNPNI 기관인 일본 UNAFEI가 주최하는 제3차 세계보호관찰학회 참석

③ 일본 내각부 국가사이버보안센터를 방문하여 일본 사이버범죄 발생동향과 대응방안에 관련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 실시 및 자료수집

④ 일본 츄오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미팅(연내 MOU 체결 관련 논의)

⑤ 동경대학교 인공지능학회 관계자와 자문회의 진행(4차산업혁명시대의 형사정책 관련 논의)

⑥ 일본 경찰청 및 환경성을 방문하여 일본 환경범죄의 발생실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자문회의 실시 및 자료수집

⑦ 일본 메이지대학 비교법연구소 관계자와 자문회의 진행(환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논의)

5. 출장일정

9월 10일(일)	16:20 출국(서울/김포공항) 18:35 도착(도쿄/하네다공항)	▫ 항 공 편 : KE2709
9월 11일(월)	10:50 일본 메이지대학 관계자 자문회의 11:30 일본 인공지능학회 관계자 자문회의 15:00 도쿄대학 MOU 체결	▫ 메이지대학 담당자 나카조라 교수 ▫ 도쿄대 일정
9월 12일(화)	09:00 세계보호관찰학회 참가(등록 Study Tour) 10:00 일본 경찰청 방문 ▸일본 환경범죄 관련 자문 및 자료수집 15:50 일본 환경성 방문 ▸일본 환경범죄 관련 자문 및 자료수집 ▸장소: 정부중앙합동청사5호관 18:00 만찬(세계보호관찰학회 개최 기념행사) ▸김진환 원장 축사 예정	▫ 환경성 담당자 요시무라, 81-3-3581-3351
9월 13일(수)	09:00 세계보호관찰학회 참가 13:30 일본 내각부 사이버보안센터(NISC) 방문 ▸주소: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4-12 16:00 도쿄대학 카와이데(川出)교수 자문회의 ▸일본 환경범죄 관련 자문 및 자료수집 17:00 일본 츄오대 로스쿨 방문 ▸MOU 체결일정 등 논의 및 저녁만찬 참석 ▸미팅장소: 츄오대 이치가야(市ヶ谷) 캠퍼스 ※주소: 東京都新宿区市谷田町1-18 ▸만찬장소: 東京 芝 とうふ屋うかい ※주소: 東京都港区芝公園4-4-13	▫ 사이버보안센터 담당자 미츠이 심의관 ▫ 도쿄대학 담당자 카와이데 교수, 나루세 교수 ▫ 이천현・윤지영 귀국(15:40)
9월 14일(목)	09:00 세계보호관찰학회 참가(폐회식) 12:00 일본 법무성 하야시 형사국장 예방 및 오찬 19:55 출국(도쿄/하네다공항) 22:15 도착(서울/김포공항)	▫ 항 공 편 : KE2710

6-1. 출장성과

□ 도쿄대학 MOU 체결

○ 일　정: 2017년 9월 11일, 15시
○ 장　소: 도쿄대학 대학원 (14時50分, 東大(本郷) 正門前)
○ 참석자:
岩村正彦 (Masahiko Iwamura)　研究科長 · 学部長
川出敏裕 (Toshihiro Kawaide)　法曹養成専攻長 (法科大学院長)
樋口亮介 (Ryosuke Higuti)　准教授 (刑法)
成瀬剛 (Go Naruse)　准教授 (刑事訴訟法)

KIC와 도쿄대학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이 상호주의에 기반한 중장기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음.

특히 형사법 및 형사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양기관은 초청강연, 공동연구, 세미나 발표, 공동학술대회 및 기관방문 등을 활성화하여 학술 및 인적교류를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음

KIC와 일본도쿄대학 법학부 MOU 체결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public of Korea

And

Graduate Schools for Law & Politics and Faculty of Law,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locat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and The Graduate Schools for Law & Politics and Faculty of Law, The University of Tokyo, located in Tokyo, Japan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Institutions**"), wishing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by developing closer academic exchange in the areas of research and by performing other activities of mutual interest, hereby agree to promote cooperation as stipulated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U**").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s and other terms set forth below, Institutions agree as follows:

I. Areas of Cooperation

Institutions shall endeavor to promote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area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riminal justice and policy, criminology, criminal law and procedure, based up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mutual respect.

II. Scope of Cooperation

The scope of cooperation may include any project that Institutions mutually consider to be desirable and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Such projec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 Joint research activities;

B. Organization of joint conference and seminars;

C. Exchange of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as per the rules of the respective institute, for limited period, as mutually agreed upon;

D. Exchange of publications, and other academic materials that are of mutual interest to both institutions;

E. Collaborative use of research facilities; and

F. Other activities and programs in the area of mutual interest.

III. Exchange of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Institutions will endeavor to facilitate visits by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from each institution. Visiting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will comply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s required by and the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Institutions may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visiting researchers from each institution at their discretion, but shall be under no obligation to do so.

Institutions will make efforts to accord the visiting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from each institution the use of research space, libraries and other facilities, and other common courtesies generally granted to guest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at the respective institution.

Institutions will assist the visiting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to find accommodation. However, the host institution shall be under no obligation to provide accommodations for them.

IV. Term of the MoU

A. **Commencement Date**.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and from the date Institutions sign the MOU ("Commencement Date").

B. **Initial Term**. The term of this MoU shall be for the term of five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C. **Renewal and Termination**. At the expiration of the initial term, this MoU shall automatically renew for successive five-year-period unless an institution provides the other institution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 not to renew at least ninety (90) days prior to the then current term.

V. Financial Commitment

As Institutions are aware of existing limitations in their respective budgets, Institutions will, as a rule, not enter into any financial commitments that reach beyond these limits.

VI. Interpretations and Settlement

A.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ooperation for each project to be implemented under this MoU shall be mutually discussed and agreed upon in writing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Institutions prior to the initiation of that project.

B. Differing viewpoints and interpretations of this MoU shall be settled amicably by mutual consultation or negotiation.

VII. Miscellaneous

This MoU shall be executed in English in two original copies. Institutions shall retain each copy that is of equal validity.

IN WITNESS WHEREOF, Institutions hereto have executed this MoU as of the date and year written below.

Zin-Hwan Kim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Date: 11 September 2017

Masahiko Iwamura
Dean
Graduate Schools for Law & Politics
And Faculty of Law
The University of Tokyo

Date: 11 September 2017

KIC와 일본도쿄대학 법학부 MOU 체결문서

□ UNAFEI 주최 세계보호관찰학회 참가

○ 초　청: UNAFEI(UN범죄방지네트워크) 소장
○ 일　정: 2017년 9월 12일(월) ~ 14일(목)
○ 위　치: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 내　용: (12일) 스터디 투어
　　(13일) 개막행사, 기조강연, 워크숍
　　(14일) 특별강연, 심포지엄, 워크샵, 기조강연, 폐회행사

UNAFEI는 UNPNI 소속기관이자 본연구원과 MOU 체결기관으로서 KIC-UNAFEI 간의 상호교류 협력 차원에서 UNAFEI가 주최하는 세계보호관찰학회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김진환 원장께 개최 환영만찬에서의 축사 요청

① 세계보호관찰회의

세계보호관찰회의는 사회내 처우의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의 보호관찰(사회내 처우)의 실무자 등이 학술 및 실무 분야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여 사회내 처우의 보급·발전 및 국제네트워크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국제회의임

세계보호관찰회의는 세계 각국의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제1회 대회(2013년)는 영국 런던에서, 제2회 대회(2015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일본에서 개최되었음.

본 회의의 대주제는 “사회내 처우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며, 전세계 34개국에서 총 371명(이중 해외 참가자 169명)이 참가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발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② 제3회 세계보호관찰회의 개요

9월 12일(화) 스터디 투어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갱생보호시설, 교정시설, 소년원 등을 방문하여 일본 갱생보호제도 및 시설에 대한 설명과 교정시설과 연계한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형정원측은 일본 법무성 내에 있는 도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관련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시설을 견학하였음.

오후 6시부터 개최된 환영리셉션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인 회의의 진행을 기원하며 각국의 주요 인사들의 축사 및 인사가 있었으며, 본연구원의 김진환 원장이 리셉션의 클로징 멘트를 맡아 회의의 성공을 기원하였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환영리셉션에서 축사

9월 13일(수)에 개최된 개회행사에서는 카미카와(上川) 법무대신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회사를 하였음.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의 갱생보호활동, 특히, 지역사회의 실정을 숙지하고 사회봉사의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독지가인 보호사의 활동이 지역의 안전과 안심을 이루어내고 있고, 나아가 일본 사회 내 처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있음을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본회의가 세계 각국의 사회 내 처우제도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저녁에 개최된 공식리셉션에는 카미카와 법무대신과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음.

공식 리셉션에서의 카미카와 법무대신 축사

9월 13일(수)과 9월 14일(목) 이틀에 걸쳐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캐나다, 영국, 미국의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관점에서의 발표가 있었으며, 개최국인 일본에서는 국제사법협력담당대사 아카네 토모코 대사가 “보호관찰의 미래: 아시아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음

캐나다 프랭크 포포리노 국제교정형사시설협회이사 기조강연

또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세계 17개국의 실무자 및 연구자들의 사례발표 및 연구발표가 있었고, 이후 관련한 질의응답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워크숍 진행 모습

마지막 날인 9월 14일(목)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갱생보호 분야에 공헌 해 온 미야타 료헤이 문화청 장관과 청소년의 비행방지 활동에 노력하고있는 NPO 법인 아이치(愛知) 재비행 방지 지원 센터의 타카사카 아사토 씨의 특별강연이 있었음. 또한 사회 내 처우의 시민 참여에 초점을 두고 각국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전체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되었음

□ 일본 츄오대 로스쿨 방문

○ 일　정: 2017년 9월 13일 17:00
○ 장　소: 츄오대 이치가야(市ヶ谷) 캠퍼스
○ 참석자: 小木曽 綾(Ogiso Ryo)　　教授 法科大学院長
中山隆夫(Nakayama Takao)　教授 元福岡高裁長官
村瀬均(Murase Hitosi)　　教授 元東京高裁判事部総括
中川深雪(Nakagawa Miyuki)　教授　법무성파견검사

일본 츄오(中央)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하여 오기소 료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나카야마 교수, 무라세 교수, 나카가와 교수 등과 KIC와 츄오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일정을 논의하였고, 양 기관의 상호주의에 기반한 중장기 학술 및 인적교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음

MOU 체결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찬동하였고, 츄오대학측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10월 2일 이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MOU체결식을 가지기로 하였음.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음

6-2. 출장성과

① 일본 인공지능학회 윤리분과 전문가 면담 [9월11일(월) 12:00-14:00]

참석자 : 김진환 원장, 김한균, 안성훈, 에마 아리사 도쿄대 교수, 후도 쿠미코 컨설턴트, 히로시 나카가와 도쿄대 교수, 코노 타카하시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부과장

- 2017년 3월 제정 일본 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에 대한 설명과 토론
인공지능연구는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은 산업, 의료, 교육, 문화, 경제, 정치, 행정 등폭넓은 영역에서 인간사회에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현격히 풍부해지는 것이 기대되는 한편, 악용이나 남용으로 공동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고도의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의 연구, 설계, 개발, 운영, 교육에 폭넓게 종사하는 인공지능연구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게는 유익한 것이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연구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
회로부터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인공지능연구자는 기술의 진화 및 사회의 변화에따라 인공지능연구자 자신의 윤리관을 발전시키고 깊게 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한다.
인공지능학회는 자신들의 사회에서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와 대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학회 회원의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는 윤리지침을 여기에 정한다. 학회 회원은 이를 지침으로 하여 행동하도록 항상 유의한다.

제1조 (인류에의 공헌)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류의 평화, 안전, 복지,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고, 기초적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공지능을 설계, 개발, 운영할 때 전문가로서 인류의 안전에의 위협을배제하려고 노력한다.
제2조 (법규제의 준수)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전문가로서 연구개발에 관련된 법규제,지적재산,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다른 사람과의 정보나 재산을 침해하거나 손실시키는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직접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존중)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공지능의 이용 및 개발에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관련 규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공정성)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서 항상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불공평이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인식하고, 개발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류가공평, 평등하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안전성)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전문가로서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그 제어에있어서 책임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서 항상 안전성과 제어가능성,필요로 하는 기밀성에 대하여 유의하고, 동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정보제공과 주의환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성실한 행동) 인공지능학회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인식하고 사회에 성실하게 신뢰받도록 행동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전문가로서허위나 불명료한 주장을 삼가고, 연구개발을 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진솔하게 설명한다.
제7조 (사회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연구개발을 한 인공지능이 미칠 결과를 검증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의도에 반하여 연구개발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동시에 인공지능이 악용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8조 (사회와의 대화와 자기계발) 인공지능학회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깊어지도록 노력한다. 인공지능학회는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회로부터 진솔하게 배우고,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 사회와 부단한 대화를 통하여 전문가로서 인간사회의 평화와 행복에 공헌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고도의전문가로서 빈틈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를원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제9조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준수 요청) 인공지능이 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정한 인공지능학회 회원과 동등하게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본 국가사이버보안전략센터 차장 면담 [9월 12일(화) 13:00-15:00]

참석자 : 김진환 원장, 김한균, 안성훈, 국가사이버보안전략센터 미스미 이쿠오 심의관, 카리마타 아츠시 심의관, 스기모토 카스미 부심의관

-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혁신 측면을 고려하는 한편 데이터 확보와 활용 중심으로 체계적 대응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비전), 2016년판 일본재흥전략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
- 2016년 들어 일본은 일련의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할 뿐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
-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일본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으로 매년 발표하는 일본재흥전략 의 2016년 판은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를 부제로 넣었고, 본문에도 관련 내용을 많이 반영
- 경제산업성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구조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 문건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6년 4월에 중간보고서를 발간
-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월에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이 내용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도 중요한 이유임.
-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제시된 이후, 일본의 정부 문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Society 5.0)”과 같이 양자를 병기해서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사용.
- 2015년판 일본재흥전략에서 ‘사이버보안전략(2015년)’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① 부정통신 감시대상 확대, ② 정보보안 및 정보화추진심의관, 사이버보안인재육성 종합강화방침 추진, ③ 대규모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민관 연계 체제구축, ④ 도쿄올림픽 대책으로서 사이버보안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 2014년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에 따라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 설립.

③ 일본 인공지능학회 전문가 및 학계 및 정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공지능학회 소속 학계 전문가 및 관련부처 전문가와 향후 인공지능윤리 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함.
- 12월 본 연구원이 대검찰청과 공동기획중인 2017년도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주제인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및 규제관련 일본 전문가를 추천키로 함.
- 인공지능학회 윤리분과 간사인 에마 아리사 교수는 일본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학술행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④ 일본 국가사이버보안전략센터 차장 미스미 이쿠오 심의관 초청강연 행사 협의

- 일본의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및 개정과정과 국가사이버보안전략 체계구축과 추진과정은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초청강연 행사를 통해 한국의 입법,행정 분야 전문가와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함.
- 미스미 이쿠오 심의관은 초청강연 행사 취지에 공감하고 초청에 응함.
- 초청강연 행사안 (12월 중순 이후)

  강연 및 합동대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회의원,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